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2)*

-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을 중심으로 -

류 중 렬**

차 례

- | | |
|--------------------------------------|---|
| 1. 서론 | 3. 대일협력에의 길-『시험적발(試驗摘發)』(1943.7.), 『적성추방(敵性追放)』(1943.11.) |
| 2. 고전의 패러디-『이설 춘향전(異說 春香傳)』(1940.5.) | 4. 결론 |

국문초록

이 글은 향파 이주홍이 일제 말기 『家庭の友』와 『半島の光』 두 잡지에 발표한 만문 만화 작품 중에서 『이설 춘향전(異說 春香傳)』(1940.5.)과 『시험적발(試驗摘發)』(1943.7.), 『적성추방(敵性追放)』(1943.11.) 등 3편을 최초로 소개하고, 이들 만문만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설 춘향전(異說 春香傳)』(1940.5.)은 『춘향전』의 복잡하고 긴 플롯을 한 편의 만문만화로 개작한 작품인데, 작품의 시대 상황과 그것이 드러내고자 하는 당대적 의미 즉, 개작 텍스트의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 이 논문은 2017년도 부산외국어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해 연구되었음.

** 부산외국어대학교 한국어문화학부

살펴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이설 춘향전』은 당시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었던 『춘향전』을 만문만화로 개작하여 대중의 기호에 편승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시험적발(試驗摘發)』(1943.7.)은 서구문화의 상징인 바이올린을 예를 들어, 영미인의 개인적이고 퇴폐적이고 자유주의적 서구문화에 동화되고 중독된 국민들을 시험에서처럼 적발하여, 충후 국민,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신 자세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으로 드러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제의 국민총력운동에서 추구하는 바의 ‘국민정신의 통일’ 즉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통일하는 것’을 조선인들에게 선전하고 강요하는 만화이다. 『적성추방(敵性追放)』(1943.11.)은 전쟁에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전장과 충후가 일치협력하여 총력전을 펼쳐야 하고, 이를 위해 영미인들의 서구문화에 물들어 있는 조선인들의 적성(敵性)을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당시의 전쟁 상황을 은폐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으로, 태평양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충후의 국민들이 영미인의 적성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만화이다. 『시험적발(試驗摘發)』과 마찬가지로 국민총력운동에서 주창하는 전시동원체제에 걸맞는 ‘국민정신의 통일’ 즉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통일하는 것’을 또 한번 선전하고 강요하는 것이다. 이 두 만화는 작가의 대일협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제어 : 『家庭の友』, 『半島の光』,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이설 춘향전(異說 春香傳)』, 『시험적발(試驗摘發)』, 『적성추방(敵性追放)』, 대일협력

1. 서론

일제 말기에 향파 이주홍이 주로 작품을 발표한 매체는 『家庭の友』와 『半島の光』, 그리고 『동양지광』이었다. 『동양지광』은 일문(日文) 친일잡지였기 때문에 그 역시 일문으로 작품을 발표하였지만,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선문판·한글판)에는 국문으로 작품을 발표하였다.

『家庭の友』는 일제강점기인 1936년 12월 조선금융조합연합회에서 월간으로 펴낸 기관지로서, 1941년 3월까지 통권 41호가 발간되다가 국민총력운동 시기인 1941년 4월부터, 『半島の光』으로 제호를 바꾸어 해방 전까지 월간으로 간행된 기관지 겸 종합잡지이다. 이 두 잡지는 일본인 소구홍과 청수정일이 편집 겸 발행인으로 되어 있으며, 대화상회인쇄소와 매일신보사 인쇄부에서 인쇄하였다. 당시에는 더물게 한글로 주로 인쇄되었으나 권두언 등에서는 일본어를 사용하기도 하였다. 특히 『半島の光』은 일문판인 ‘화문판’과 한글판인 ‘선문판’으로 나누어 발간되었다. 이 잡지들의 내용은 처음에는 주로 농촌 가정생활에 필요한 소식들이었으나, 1930년대 말기부터는 대일협력적인 시국적 내용이 중심이 된 전형적인 친일잡지이다. 적지않은 작가들이 참여하여 친일 작품을 발표하였다. 향파도 1940년 2월 『家庭の友』에 만문만화 「대지(大地)의 아들」을 시작으로, 1944년 1월 『半島の光』에 만문만화 「적(敵)의 흑심(黑心) 폭로전(暴露展)」을 발표하기까지 40여회에 걸쳐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지만 대부분이 만화 작품이다.¹⁾ 1940년부터 1945년까지의 이주홍의 만문만화는 『동양지광』에 수록된 「학생풍속시평(學生風俗時評)」(1943.6)을 제외하면 이 두 잡지에만 수록되어 있다. 두 잡지에 수록된 작품 목록은 다음과 같다.²⁾

1) 류종렬,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1)」, 『한국문학논총』 제74집, 한국문학회, 2016. 393-394쪽. 두 잡지의 구체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400-404쪽을 참조.

2) 류종렬, 위의 논문, 393-394쪽.

①대지(大地)의 아들(『家庭の友』, 1940.2, 만문만화) ②이설(異說)춘향전(春香傳)(『家庭の友』, 1940.5, 만문만화) ③여성학교(女性學校)(『家庭の友』, 1940.9, 만문만화) ④걱정 백태(百態)(『家庭の友』, 1940.10, 만문만화) ⑤~⑭즐거운 박(朴)침지(『家庭の友』, 『半島の光』, 1940.11~1941.8, 연재만화) ⑮~⑯정만서(『半島の光』, 1941.9~10, 신정언 술, 이주홍 화) ⑰산지대농촌현지보고(山地帶農村現地報告)-비경(秘境)에 사는 사람들-갑산(甲山), 풍산(豊山)을 다녀와서-(『半島の光』, 1941.11, 보고서(수필)) ⑱정만서(『半島の光』, 1941.12, 신정언 술, 이주홍 화) ⑲농촌현지보고(農村現地報告) 좌담회(座談會), 문화인(文化人)의 눈에 빛친 농촌(農村)과 금융조합(金融組合)(『半島の光』, 1942.1, 출석자(出席者) 소설가 채만식, 평론가 인정식, 만화가 이주홍, 본회측(本會側) 보급과장 清水(?) 外 기자) ⑳~㉘ ㉚~㉜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半島の光』, 1942.1~1942.12, 연재만화) ㉞북관농가(北關農家):비화(扉畵)(『半島の光』, 1942.10.) ㉟정초(正初)의 우습관, 유-모어 야사(野史), 새벽에 도라온 중(『半島の光』, 1943.1, 문·화(文畵)) ㊱~㊳버리지 못할 전통(伝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半島の光』, 1943.3~1943.4, 만문만화) ㊵긋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말 전통(伝統)(『半島の光』, 1943.6, 만문만화) ㊿시험적발(試驗摘發)(『半島の光』, 1943.7, 만문만화) ㊿적성추방(敵性追放)(『半島の光』, 1943.11, 만문만화) ㊿괴물퇴치(怪物退治)(『半島の光』, 1943.11, 4칸만화) ㊿적(敵)의 흑심(黑心) 폭로전(暴露展)(『半島の光』, 1944.1, 만문만화)

이 글은 이들 작품 중 만문 만화에 해당하는 「이설 춘향전(異說 春香傳)」(1940.5.)과 「시험적발(試驗摘發)」(1943.7.), 「적성추방(敵性追放)」(1943.11.) 등 3편을 최초로 소개하고, 이들 만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향파의 일제강점기의 마지막 만문만화인 ㊿ 「적(敵)의 흑심(黑心) 폭로전(暴露展)」(『半島の光』, 1944.1.)은 영인상태가 좋지 않아 제외하였다. 또한 이를 통해 일제 말기 이주홍의 대일협력이라는 역사인식의 문제도 검토하였다. 그러므로 만문만화로서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중심으로 고찰될 것이다. 아울러 이 글은 필자의 논문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1)」(『한국문학논총』 제74집, 한국문

학회, 2016.)의 후속편에 해당된다. 이 논문에서는 만문만화 중에서 당대의 세태 풍속을 다소 해학적으로 그리고 있는 「대지(大地)의 아들」(1940.2.), 「여성학교(女性學校)」(1940.5.), 「걱정백태(百態)」(1940.10.) 등과 당시의 조선인들이 지켜야 할 전통과 고쳐야 할 습속의 문제를 검토한 「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3.), 「버리지 못할 전통(傳統), 버려야 할 습속(習俗)」(1943.4.), 「고쳐야 할 습속(習俗), 버리지 말 전통(傳統)」(1943.6.) 등 6편의 작품을 소개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지금까지 이 두 잡지에 실린 향파의 작품에 대한 연구는 염희경, 오진원, 류종렬 등에 의해 이루어졌으나,³⁾ 만문만화에 대한 연구는 류종렬의

3) 염희경은 「이주홍 작품 연표」(김인환·정호웅 외, 『주변에서 글쓰기, 상처와 선택: 탄생 100주년 문학인 기념 문학제 논문집』, 민음사, 2006, 110-136쪽.)에서 처음으로 만화 작품에 대해 연표를 정리하였고, 오진원은 「이주홍 연표의 비어있는 기간을 찾아서」(『어린이와 문학』, 2011, 10. 원종찬 외 지음,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엮음, 『한국아동문학사의 재발견』, 청동거울, 2015. 361-371쪽.)에서 만화가로서의 이주홍에 주목하여, 기존의 이주홍 연표에 1941년과 1942년의 활동이 빠져 있다고 하면서, 『동아일보』와 『半島의光』에 실린 이주홍의 만화 작품을 발굴하여 소개하고, 『半島의光』에 실린 이주홍의 만화는 ‘이주홍의 감춰졌던 친일의 흔적’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半島의光』에 실린 연재만화 「즐거운 박첨지」와 「명랑한 김산일가」의 친일 양상을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다. 그런데 염희경이 작성한 연표에는 누락된 사항이 제법 있고, 오진원이 발굴했다는 자료는 이미 염희경에 의해 정리되어진 것이었고, 만화 「즐거운 박첨지」는 『家庭の友』 1940년 11월에서 1941년 3월까지 연재되다가 『半島의光』으로 이어져 계속 발표되었다는 점을 간과하였고, 두 만화를 구체적으로 연구하지는 않았다. 류종렬은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작품 연구(2)」(『한중인문학연구』 제44집, 한중인문학회, 2014. 202쪽.)에서 『家庭の友』와 『半島의光』에 수록된 이주홍의 작품 목록을 새롭게 정리하고, 또한 류종렬은 「이주홍 작품의 화전민과 메아리 모티프의 변모 양상」(『한국문학논총』 제69집, 한국문화학회, 2016. 229-259쪽.)에서 『半島의光』 1941년 11월호에 수록된 향파의 기행보고문 「산지대농촌현지보고(山地帶農村現地報告)-비경(秘境)에 사는 사람들-갑산(甲山), 풍산(豊山)을 다녀와서-」와 그의 소설 「내 산아」와 동화 「메아리」 사이의 상호텍스트성을 검토하는 가운데서, 「산지대농촌현지보고(山地帶農村現地報告)-비경(秘境)에 사는 사람들-갑산(甲山), 풍산(豊山)을 다녀와서-」를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류종렬,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

위의 논문이 유일하다. 이들 잡지에 실린 만문만화들은 일제 말기 이주홍의 현실인식과 그가 어떻게 대일협력의 길로 나아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에 이주홍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다.

만문만화는 1920~30년대 주로 신문과 잡지 등의 지면에 발표되었는데, 한 컷짜리 만화에 짧은 줄글이 결합된 형태를 하고 있다. 여느 만화에 말풍선이 있는 것과는 달리 만문만화는 서술문이 있어서 의미를 전달한다. 이 말풍선의 유무가 보통 만화와 만문만화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다. 만문이라는 형식은 인물의 심경과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말풍선보다는, 아무래도 덜 직접적이고 풍자적인 문체를 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어쩌면 만문만화가 발표되던 당시의 시대상황에서 말미암은 선택일지도 모르겠다. 일제의 검열과 사상 탄압이 기승을 떨치던 당시, 탄압을 피하기 위해서는 좀더 우회적이고 은유적인 방식을 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⁴⁾ 그런데 1924년이 지나면서 사회비판적인 만화를 신문 잡지에 실을 수가 없게 되자 1927년을 전후하여 만문만화가 하나의 장르로서 새롭게 출발했다고 한다. 그리고 안석영을 필두로 하여 최영수, 김규택, 임홍은, 이주홍 등의 작가들이 1930년대 신문과 잡지에 여러 편의 만문만화를 발표했는데, 1930년대의 신문 잡지에서 소위 시사만화는 거의 사라지고, 만문만화가 주된 장르로 등장하게 된 것인데, 시대 상황이 시사만화를 허락하지 않자, 1930년대의 도시풍경을 주된 내용으로 다루는 만문만화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하였다.⁵⁾ 그러나 『家庭の友』와 『半島の光』, 그리고 『동양지광』 등을 통해 볼 때, 1940년대에도 많지는 않지만 시사만화와 만문만화가 발표되었는데, 대부분이 시국적인 것으로 대일협력적인 내용이다. 이주홍의 만화도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⁶⁾

구(1)』, 『한국문학논총』 제74집, 한국문학회, 2016. 395-396쪽.

4) 신명직, 『모던 쏘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3, 6-7쪽.

5) 신명직, 위의 책, 8-9쪽.

6) 류종렬,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1)」, 『한국문학논총』 제74집, 한국문

그리고 이 글은 만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재미와 익살이라는 특징에 가려 쉽게 드러나지 않는 ‘시선의 정치’를 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사만화는 어떤 사실이나 사건을 ‘재미있게’ 또는 ‘알기 쉽게’ 표현할 뿐만 아니라, 특정 사회가 공유한 상징체계와 표현양식을 통해 특정 경향의 ‘규율’을 무의식 또는 의식적으로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정치 권력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만화매체의 생략과 과장이라는 형식 속에는 엄청난 휘발성과 폭발성이 잠재되어 있다.⁹⁾ 중일전쟁에 이어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의 정치’가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家庭の友』와 『半島の光』에 발표된 작품들이 모두 시사풍 자만화는 아니지만, 이러한 관점은 만화 연구의 방법론으로 적합할 것으로 여겨진다.¹⁰⁾

2. 고전의 패러디-『이설 춘향전(異說 春香傳)』 (1940.5.)

『이설 춘향전(異說 春香傳)』은 6컷의 만화와 만문으로 개작된 『춘향전』이다.

만화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만화는 지계를 진 이충각이 들판에 농사짓고 있는 춘희(春姬)를 바라보고 있다. 둘째 만화는 이충각과 춘희가 서로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다. 셋째 만화는 이충각이 돈을 벌기 위해 만주로 떠나고 춘희는 떠나는 그의 모습을 보며 슬퍼한다. 변주사(卞主事)가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넷째 만화는 이충각이 없는 사이에 변주사가 춘희를 끌어안으려고 하고 있고 춘희는 그를 뿌리치고

학회, 2016. 399쪽.

9) 한상일·한정선, 『일본, 만화로 제국을 그리다』, 일조각, 2006, p.5. 필자는 이주홍의 일문만화를 연구하면서 이 책의 연구 방법에 많은 도움을 받았다.

10) 류중렬, 앞의 논문, 399쪽.



있다. 변주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춘희를 그의 부모는 도와주지 못하고 울면서 바라보고만 있다. 다섯째 만화는 만주에서 돌아온 이총각이 변주사에게 몽둥이질을 하자 놀란 변주사가 밥사발을 뒤집어쓰고 줄행랑을 치고 있다. 여섯째 만화는 이총각과 춘희가 결혼을 해서 행복한 모습으로 들판에 서 있다. 아침 해가 뜨고 새가 날고 있다.

만문을 읊기면 다음과 같다. “날마다 들판에서 만나는 春姬 엇만 저러케도 어여쁠까? 武陵明沙 아니어든 海棠花 도 아닐테고 巫山十二峰 아니어든 仙女 도 아닐테고, 北邙山川 아니어든 귀신도 아닐테고, 玉 은 옛날 崑山 이 탈쩍 玉과 돌이 다 닳스니. 玉 도 분명 아니련만 저러케도 곱단말가// 안보면 보고지고 보고나면 가기실코 내 주먹 鍊券 이오 내 발이 鍊脚 이라. 아침엔 씨뿌리고 저녁되면 나무비여 한 평생 잘 살 테니. 어느 개 아들놈이 부러울소냐 수연한 고흔 태도 조양에 핀 海棠花 요// 「허허 이게 웬말이오 含淚眼看 含淚眼 이오, 斷腸送人 斷腸人 이란 글이 예다두고 한말이구료.... 무정한 당신이요 날 버리고 어디로 가려오.」 「내가 가면 아조가며 아조간들 이즐소냐 살길업서 만주로 간다마는 쇠꿔가

치 모진마음 흥노라도 녹일세라 부대 날만밧고 기다리오.....」.// 못드렀나 못드렀나 卞主事 소문 못 드렀나. 돈만코 수단 조호니 나우에 더플 신랑감은 업스렀다. 내 덕에 네가 조코 네 덕에 父母 도 편할테니. 부대 그러지 말고 내 한말만 드러다고. 沈魚落雁 기고 뜨며 閉月羞花 정 조쿠나 으호호// 마음에 업는 약한 여자를 잡어 黃金 몇 十兩 으로 욕심을 채우려는 그놈도 고안 놈이라. 李 총각 時代가 달리 비록 어사는 못했슬 망정 논말지거나 살돈은 작만해왔다. 벽력갓흔 몽둥이 바람에 밥사발을 帽子인줄 뒤집어쓰고, 손을 발인 줄 알고 별소 기어 最大急行 三十六계를 늦논풀이야.// 정성이 지극하야 李花春風 이 날 살렸나. 도다오는 아침해는 황금보다 찰란하고 질편한 곡식들은 물결처럼 출렁댄다. 이슬갓흔 네 마음 무쇠갓흔 내 팔뚝 오날도 등 넘어는 풀꼭새만 풀국 !”

주지하다시피 『춘향전』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오랜 세월동안 대중들에게 널리 읽힌 작품이다. 『춘향전』은 광대로 대표되는 서민 예능집단이 다양한 근원 설화를 바탕으로 이 도령과 춘향의 이야기를 만들고, 그것을 놀이판에서 판소리 춘향가로 부르면서 형성되었다. 정확한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춘향가가 판소리 광대에 의해 연행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숙종 말 영조 초로 추정된다. 후대에 내려오면서 춘향가는 판소리 광대의 노력으로 성장하여 18세기 중기 이후에 어전이나 여항부호를 비롯하여 일부 양반층의 관심을 끌었고, 특히 19세기 들어와서 왕실까지 수용자가 확장되면서 다양한 수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방향으로 변형을 겪게 된다. 춘향가가 확장·발전하면서 서로 다른 개성적인 유과가 형성되었고, 춘향가의 세계는 그만큼 다양해졌다. 한편, 춘향 이야기는 소리판에만 머물지 않고 감상층의 욕구를 만족시키려는 노력으로 소설로 정착되기도 하였다. 『춘향전』의 장르와 매체의 전환은 현대에도 이어져, 창극, 마당극, 영화 등으로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용자의 확산 과정을 통하여 『춘향전』은 계층과 역사를 초월한 ‘국민문학’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¹¹⁾

일제강점기에도 『춘향전』은 구활자본으로 출판되어 대중들에게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으며, 또한 이해조의 『옥중화』, 이광수의 『일설춘향전』 등의 소설로 개작되어 널리 읽혔다.¹²⁾ 뿐만 아니라 영화, 연극, 창극, 판소리에 이어 만화, 만담, 유행가로 개작되기도 하였다.¹³⁾

이주홍은 춘향 이야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 광복 후 소설 『탈선 춘향전』(1951)과 희곡 『탈선춘향전』(1949), 『춘향전』(1951), 『방자 부활 하셨네』(1970) 등을 발표하였다.¹⁴⁾ 『이설 춘향전(異說春香傳)』은 이러한 향파의 『춘향전』에 대한 관심을 처음으로 보여주는 작품으로, 만화로 개작된 것이다.¹⁵⁾ 당시 『춘향전』은 만화로도 개작되어 대중의 인기를 누렸는데, 당대의 유명한 만화가인 응촌 김규택의 만문만화 『춘향전』이 그것이다. 그는 당시의 모던풍의 시대상황과 연관지어 『모던 춘향전』을 카

11) 황혜진, 『춘향전의 수용문화』, 월인, 2007, 20쪽.

12)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4, 64-76쪽 참조.

13) 근대 이후의 『춘향전』 수용에 관한 연구는 다음을 참고할 것. 한채화, 『개화기 이후의 『춘향전』 연구』, 푸른사상사, 2002. 황혜진, 『춘향전의 수용문화』, 월인, 2007, 고은지, 1930년대 대중문화 속의 ‘춘향전’의 모던화 양상과 그 의미-『만화 모던 춘향전』을 중심으로, 『민족문화사연구』 30호, 2007, 272-303쪽. 이미원, 현대극의 <춘향전> 수용, 『고전회곡 연구』, 제6집, 2003, 251-272쪽. 신명직, 김규택의 만문만화와 ‘웃음’, 사에구사 도시카쓰 외, 『한국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485-522쪽. 노지성, ‘춘향전’ 패러디 소설과 1955년 영화 <춘향전>, 『한민족어문학』 55집, 2009, 53-87쪽.

14) 이들 작품은 다음의 책에 수록되어 있다. 류종렬 엮음, 『이주홍 소설 전집』 제2권, 세종출판사, 2006. 정봉석 엮음, 『이주홍 극문학 전집』 제1-2권, 세종출판사, 2006. 이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정봉석, 이주홍의 춘향 제재 변용 희곡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20집, 동남어문학회, 2005, 219-239쪽. 김재식, 이주홍의 『탈선춘향전』과 『춘향전』 연구, 진창영 외, 『한국문학 속의 합천과 이주홍』, 국학자료원, 2012, 289-316쪽. 노지성, ‘춘향전’ 패러디 소설과 1955년 영화 <춘향전>, 『한민족어문학』 55집, 2009, 53-87쪽.

15) 향파의 자필 연보에 의하면, ‘1944년 조선영화주식회사 시나리오 공모에 작품 <춘향>이 당선’ 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그리고 필자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협동문고에서 『춘향전』을 출판한 듯하다. 이주홍문학관에서 펴낸 문학관 소장 목록에는 없으나, 남원의 춘향관에 소장되어 있는 듯한데 직접 확인하지 못했다.

프 계통의 잡지 『제일선』에 1932년 11월부터 1933년 3월까지, 『억지 춘향전』을 잡지 『조광』에 1941년 2월부터 7월까지 연재하였다. 그러나 김규택의 두 작품이 일반적인 만문만화의 형식과는 달리 30-40칸의 글과 만화로 연속되어 있는데 비해, 향파의 경우는 일반적인 만문만화의 형식을 고수하여 단회로 6칸의 글과 만화로 되어 있다.¹⁶⁾

『이설 춘향전』의 만문의 플롯을 요약하면, 이충각이 춘희에게 반하여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충각이 돈을 벌려고 만주로 떠났을 때 변주사가 춘희를 유혹하였으나 그녀는 정조를 지켰으며, 만주에서 돈을 벌어들인 이충각이 변주사를 쫓아내고 돌아와서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이설 춘향전』은 『춘향전』의 복잡하고 긴 플롯을 한 편의 만문만화로 간략하게 개작한 작품이다.

개작 텍스트는 선행텍스트를 수용하는 동시에 변형한다. 이렇게 향파에 의해 만화로 생성된 『춘향전』 개작 텍스트는 현재적 관점에서 변형시키는 개작 행위자의 지평이 작용한다는 의미에서 당대적이며, 변형의 방식 속에 개작 행위자의 실천이 개입한다는 의미에서 이데올로기적이다. 이렇게 당대의 사회문화적 지평에서 사회적 행위자의 이데올로기에 따라 달라지는 『춘향전』의 개작 활동은 춘향전 수용의 역사를 보여준다.¹⁷⁾ 『춘향전』은 시대적으로 상대적인 가치 평가가 행해질 뿐만 아니라 실제로 창작 텍스트의 형식으로 변형된다. 『춘향전』은 문학 텍스트의 역사적인 수용 상황을 보여 주고 있는 대표적인 텍스트라고 할 수 있다. 모든 문학 텍스트가 다른 시간과 공간의 수용자에 의해 ‘다시 쓰여진다’는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춘향전』의 경우에는 생산적 읽기까지 포괄하는 비유적인 쓰여짐을 넘어서 문학과 문화 텍스트의 형태로 지속적으로 생성되기 때문에 대표성을 갖는다. 이렇게 과거의 텍스트를 참조로 한 『춘향전』의 개작은 상호텍스트성의 산물이다. 상호텍스트적인 관점

16) 신명직, 김규택의 만문만화와 ‘웃음’, 사예구사 도시카쓰 외, 『한국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486쪽.

17) 황혜진, 앞의 책, 17쪽.

에서 개작은 이전의 『춘향전』 텍스트를 읽는 것이며, 다른 『춘향전』 텍스트에 몰입하고 자기 응답을 하는 것이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춘향전』 개작은 과거의 『춘향전』 텍스트와 개작자 간의 대화의 산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¹⁸⁾

상호텍스트적 측면에서, 등장인물이 춘향, 이몽룡, 변사또에서 춘희, 이충각, 변주사로 바뀌었고, 춘향의 부모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은 등장하지 않는다. 그리고 줄거리도 간결하게 바뀌었다. 줄거리가 간결하게 된 건 만화 장르, 특히 만문만화의 특성을 고려하면 이해가 된다.

그런데 개작 연구에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은 상호텍스트성에 대한 해명 못지않게 사회적인 행위자와 사회적 조건이다. 텍스트와 텍스트는 특정한 사회적 상황 안에서 관계를 맺는다. 따라서 어떤 행위자가 어떤 사회적 조건에서 무엇을 목적으로 『춘향전』을 변형시켰는지에 대해 고찰해 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¹⁹⁾ 즉, 이런 서사 형식의 변화가 어떤 사회문화적인 조건에서 비롯된 것이며, 개작 텍스트가 당대의 문화에 개입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실천으로서 어떤 의의가 있었는지에 대하여 개작자들에게 『춘향전』을 다시 읽게 만드는 텍스트 외적인 사회적 조건과 개작자들이 생산한 텍스트의 내적인 효과라는 두 접근 방향에서 개작 텍스트의 이데올로기성을 밝혀야 할 것이다.²⁰⁾

이 작품이 발표된 1940년 5월이라는 시대 상황과 만화가 대중문화 매체라는 점을 고려해서 살펴보면, 변주사는 농촌의 지주나 마름에 해당되는 듯하고, 돈을 벌려고 만주로 가야 하는 이충각은 당시 가난으로 고향을 떠나는 유이민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충각이 만주로 떠났을 때 변주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춘희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춘희의 부모 모습이 그림에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마름이나 지주의 횡포를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 시절의 일반 농민들의

18) 황혜진, 앞의 책, 16-17쪽.

19) 황혜진, 앞의 책, 23쪽.

20) 황혜진, 앞의 책, 24쪽.

모습이 묘사된 것 같다. 그리고 이충각이 돌아와 변주사를 몽둥이질 하는 모습은 역전된 상황을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작품은 한 편의 만문만화에 「춘향전」의 긴 플롯을 너무 요약하여 추상적으로 제시하였기 때문에, 당대의 농촌 상황과 이 작품이 드러내고자하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이충각의 만주행을 당시의 일제의 기만적인 만주개척정책과 관련지어 해석할 수 있을지도 분명하지 않고, 특히 변주사의 정체가 분명하지 않아²¹⁾ 농촌이라는 배경은 당대성을 상실하게 되었고, 이충각이 고향에 돌아와 변주사를 쫓아내는 행위도 일제에 대한 저항적인 의미를 지니기도 어렵다. 단지 당시의 농촌이 이충각과 춘희라는 인물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갈 만한 공간이 아니라는 점은 확실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아 이충각과 춘희라는 농촌 청년 남녀의 환상적인 로맨스에 지나지 않는다. 즉, 개작 텍스트의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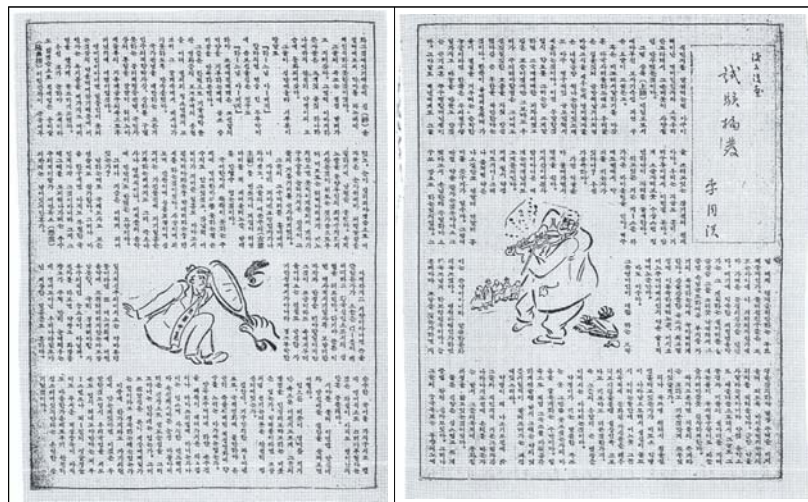
이상을 통해 볼 때, 「이설 춘향전」은 당시 조선에서 대중들에게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었던 「춘향전」을 대중매체인 만문만화로 개작하여 대중의 독서 취향에 편승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이는 김규택의 만문만화 「모던춘향전」이나 「억지 춘향전」과 비교하여 살펴보면 이러한 평가가 타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김규택의 만문만화는 만화매체임에도 불구하고 ‘고전의 모던화’ 작업을 통해 “익숙한 문화에 대한 관습에 안주하려는 기성세대와 새로운 문화를 열망하는 신세대 사이에 있는 간극을 줄이는데 기여했다는 당대적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²²⁾고 평가될 수 있지만, 향파의 「이설 춘향전」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21) 변주사의 옷차림에서 추론한다면, 그가 쓴 모자는 중국인의 모습을 보이는 듯하다. 그러나 만주가 아닌 이충각네가 사는 조선의 농촌에 중국인이 지주로 있다고는 보기 어렵기에, 앞에서 농촌의 지주나 마름에 해당되는 듯하다고 설명하였다.

22) 고은지, 앞의 논문, 300쪽.

3. 대일협력에의 길-『시험적발(試驗摘發)』(1943.7.), 『적성추방(敵性追放)』(1943.11.)

『시험적발(試驗摘發)』(1943.7.)은 2쪽에 걸쳐있는 만문만화로, 다른 만문만화와는 달리 만화에 비해 만문이 지나치게 길다.



이 작품에서 만화는 두 컷이 삽입되어 있다. 앞 쪽의 만화는 키가 큰 영미인 약쟁이가 길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고 있고 그 뒤에는 약통인 듯한 상자에 마수같은 검은 손이 3개나 나오고 있으며 그 옆에는 키 작은 조선사람들이 이를 바라 보고 있고 모습이고, 뒤 쪽의 만화는 눈을 부릅뜨고 큰 돋보기를 이용해서 영미인의 문화에 중독된 조선인을 자세히 살펴보는 모습이 담고 있다. 만문을 읊기면 다음과 같다..

식민지를 달궂어 먹는덴 아주 이력이 난 영미인인지라 오직 우리 반도
라 해서 그 손 버릇이 사양 뉘린 만무했든 것이다.

그럼 상륙(上陸) 제일보로서 메다부친 보자기 속엔 과연 무슨 요술이 드렸든고.

혹은 비교해서 말하기를 다갓흔 타국사리를 하드래도 우리들은 집을 짓되 금방 떠날거나처럼 바락크식을 세우는데 영미작자들은 내일 금방 떠나는 한이 있드래도 아주 영구적인 규모밋해서 세운다는 것이다. 이 건 두말할 것 업시 향토를 그리는 맘 크게 말하면 조국애에 대한 피차의 엇고 김흔 표증이겠지만 그보다도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그 너머도 질깃질깃한 호흡을 자칫 방심했다간 큰 후한을 작만한다는 것이다. 한쪽이 봄에 씨를 뿌려 가을에 결실을 거두려는 순박한 농군이라면 한쪽은 무여 절구쪼일 가지고 바늘을 만들고 안젓는 근기 조흔 쭈구렁 할 머닌 셈이다. 그야말로 백년대계로 그물을 조리고잇는 장기전의 천재이다. 우리는 지금도 흔히 거리 구통이에서 이런 걸 본다. 암개 오줌자리 보듯 수상스런 청년 하나이 자리를 물색한다.

끼고잇든 거른케-스를 까가지곤 바이올린을 킨다. 백주 대로변에서 악기를 키는 자가 있다니? 우선 가뭇죽하다.

가진 익살을 다 붙여가면서 행객을 끈다. 어지간이 바쁜 사람이 아니곤 대개는 역개념어로 고개를 뒤흔다. 저게 필시 약쟁이로거니...그러나 좀처럼 약은 나오질 안코 연달러 연달러 흥미를 뒹구기가 일수다. 그럼 대관절 약을 팔자는 것두 아니요 그럿타고서 손님한테 무얼 하나 요구도 강요도 하는 빗치 업다. 그럼 대체 행객을 위안하는 무료제공자인가. 둘러선 친구들은 모르는 사이에 이 거리의 자선가예다 가벼운 동정의 생각을 던진다. 여기에 익숙한 괴청년 음악가는 그 계획하는 실마리를 살금살금 그물 조리듯 낙귀채서 그 중엔 손님들로 하여금 부지중 자기의 목적하는 바에 녹아버리게 한다. 간들간들한 곡조가 최고 절정에 이름죽하게해 노곤 어시호 어느 주머니에서인지 약을 슬-적 내여 노곤 만다.

바로 이 수다.

그들 영미인이 대뜸 까는 보작이는 쓴 약이 아니라 달콤한 문화적 곡조였다. 병원타령인가 하면 한 곡조 넘겨 학교행진곡이다. 늙흔 메마다 교당을 짓는가하면 지형을 갖지하야 별장 주택을 비저올려 되도록 바이올린 키는 자의 위치를 칙혀 올닌다.

금방 약을 사달라는게 아니라 양껏 음악으로 배불러 줌으로 해서 그들로 그 동정과 미듬의 실마리를 자버 채는 품이 무쇠 절구쪼이로 바늘

을 가려 만들 듯 침착하게 한다.

따지고 본다면 저들의 큰 게라곤 코하고 키 큰 것밖에 또 무엇이 있
슬겐가.

하나 곡조에 취해서 침을 질질 흘리고 잇든 자가 비로소 약병이 나타
남으로 해서 정신이 돌드시 이러는 동안에 어느 듯 그들의 목적에 동화
된 자신들을 깨우쳐 보게됨을 볼 땐 실상인즉 코보다도 키보다도 더 큰
한가지 즉 그들의 유달리 큰 뱃장을 이저시는 아니되는 것이다.

약정이가 키는 달콤한 곡조는 곳 그만큼 듯고 섰는 자의 마음을 굴복
케하는 수단이다. 입 속으로 제법 그 곡조를 맞춰봄 즉하게 뱃을 뗌 발
서 그때는 약의 몇분지 일석이 팔려 드러가는 과정에 잇스리다.

약병이 채 나오기도 전에 즉 그들의 식민지적 거른 그림자가 나타나
기도 전에 은혜를 바돈 자는 발서 그들의 목적에 동화될 과정을 밟고
잇는 것 이었다.

물론 신앙은 성스럽고 또 개중엔 참된 신도도 있다. 그러나 그들의
궁극 목표는 동양의 노예화 그것에 잇기 때문에 신(神)을 절며 메고서
악마를 파는 데에 채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다.

그들의 곡조는 점점 달려 가고 지터 갔다. 그땐 이바지하든 자들은
고개짓 몸짓 하나 하나에까지 완전히 약쟁이의 모습에 동화되어 갔다.

그들이 성단에 올라 서투른 이 땅 말로

「하-느님 아-버지」

할라치면 연승 힌 두루마리에 숨보선을 신은 친구도

「하-느님 아-버지」

하야 조선에 전래해온 조선말의 억양을 거부하는 데에 몸소 승리감을
만족하곤 했다.

그들은 한편으로 기술과학 출판 영화 등의 보조 부대의 응원을 어더
권외의 청소년까지 모조리 그 굴레 속에서 버서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
을 했다.

국가관념을 배반하는 모든 개인주의적 향락 사상, 상하를 구별 못하
는 공리적 평등 관념, 국민사상의 통일을 갈갈이 허터노아 제들류의 자
유배금주의 속으로 후려 넋키에 여염이 업섯다.

영미인이 아니라면 일등인이 못되는 것갓치 약을 먹여놔기 때문에 어
떤 자는 옥시풀을 써가지고 머리털을 빨가케 물드리기도 했다.

우선 코가 눅하야 모색이라도 닭겅슴으로 전해 업든 음비술(隆比術)

이란 간판이 곳곳에 부딪고, 눈이 김허뵈야겟습으로 여자들은 눈자위에 다 퍼렁 물감을 칠하기에 남편을 골렸다. 육체 노출을 동양 부인의 최대 수치로 의서 왔든 것이 위로는 젓가슴으로부터 미트로는 허벅다리까지 까노치 안으면 못백이게 쫘 되여 게다가 구두굽을 높혀 가지곤 간신히 그들의 거름거리를 근사하게 했다.

그들의 고수머리를 흉내내자니 자연히 파마넨트 영업자가 나와야겟고, 그들의 여존주의(女尊主義)를 번뜨자니 게집이 허연 다리를 척 괴여 올려노균 담배를 안 빨수 업는 것이다.

국어 한 마디 똑똑이 못하는 주제에 영어 한 마디쫘 못하는 걸 큰 수치로 알고 잇섯고, 갓날쩍 어버이가 지어준 일흠도 마다고서 김마리아라는 등 박에리라는 등 행세를 하는 것이었다. 사상이며 외표며 간판이며 상품 표장이며 심지어는 가진 물건에 자기 일흠을 기록하는 데까지도 그저 죽으나 사나 영짜식이니, 여석들의 음악에 단단이도 반했든 모양이다.

그러나 지금은 어떠케 되어 있는가?

남 하는대로 국채도 사고 모든 연습에도 참가한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엔 아직도 투철한 국민적 자각 그것이 아니라 그저 그때 그때를 모피해 나가려는 추수주의적이랄가 미영 독소(毒素)의 잔재는 남아 잇지 안흔가.

어제까지도 서양이 아니면 죽을 줄 알든 자가 오늘은 테-블이 깨여지라고 황국시민으로서의 정렬을 터트린다. 하기가 물론 이런 역사적 시기일수록 보담 더한 자각과 탄성을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속에서부터 일어나오는 진실로 근신한 자기 반성에서가 아니라 경조 부박한 일시 처신주의에서 오는 약바른 행동이라면 또 어느 기회에 어떤 음악에 도취해 버리지 안는다고 장담못할, 극히 경계해야 할 자유주의적인 동요성이 아닐까. 전차를 타보면 약 광고 화장품 광고가 무척 만히 눈에 띄우는데 영어도 아닌 우리나라 말도 아닌 괴상한 일흠들도 흔하다. 순수한 국어를 가지구서도 엘써 영어식으로 꼬러다 부칠라는 것은 확실히 아직도 병이 낫지 안흔 증줄깨다.

시야를 돌려 이번엔 당신네와 당신네들 집안을 살펴보면 어떨까.

입으론 버릇이 영미를 치지만 속으론 어딘지 모르게 그들의 장점을 인정해 보라고 하는 버릇은 업는가. 박래품이라면 조상처럼 섬기는 버릇은 완전히 청산되어 잇는가.

집안에 기구망칙한 파-마넛트로 국책영화에 불만하야 은근히 축출되 버린 적성영화에 향수를 느끼는 아가씨는 업는가.

양복호주머니에 하얀 손수건을 빼죽이 내여가지곤 찻집이나 다마쓰 끼집에 다니는 사나이는 업스며 사치한 핸드백에다 육친께서 바든 눈섭 다 뿔아버리곤 검정으로 갈보 눈섭을 그리고 다니는 안악네는 업는가. 그리고 또 당신은 돈이 세상에 제일가는 힘이라고 생각하는 때는 업는가.

이중에 한 가지라도 자기의 현실에 맞는 게 있다면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업시 우리 국민을 씨도 손도 업시 해내고야 만다는 저 루-스벨트나 처-칠의 정글정글이도 무서운 적성중독이 아직도 마음 한가운데로부터 완전히 청소되어 있지 안타는 유일한 증거일 것이다.

여기서 작가는 당시 연합국의 주축인 영국과 미국에 대한 비판으로 시작하고 있다. 먼저, 그들은 식민지 통치에 익숙하다고 하면서, 조선에 들어오면서 그들이 가져온 보자기 속에 무슨 요술이 들었는가를 질문한다. 영미인들은 조선인과 달리 식민지 지배를 백년대계로 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설계한다고 하였다. 그것의 예를 바이올린을 꺼내 백주 대로에서 음악을 연주하는 청년을 들고 있다. 그는 걸으로 보기에는 무료로 오랫동안 음악을 들려주기는 하지만, 그게 바로 약을 파는 상술이고, 그것도 쓴 약이 아니라 문화적 곡조라고 비유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들이 커는 달콤한 곡조에 자신도 모르게 동화되어, 즉 영미인들의 검은 그림자에 동화되어 가는데 정작 국민들은 그걸 인식 못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기독교와 교당 그리고 마음뿐만 아니라 걸모습도 영미인을 모방하는 상황에 대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기술한다. 용비술로 코를 높이 세우고, 여성들은 눈자위에 푸른 물감을 칠하고, 육체노출을 심하게 하고, 고수머리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가고, 굽 높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또한 국어도 못하면서 영어 한 마디 못하는 것을 큰 수치로 알고, 이름부터 영어식으로 바꾸고, 사상 외모 간판 상품 포장 광고에도 영어가 남발하고, 기술과학, 출판과 영화산업에도 영향을 끼치

고 있다고 말한다. 작자는 그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동양의 노예화 그것에 있기 때문에 신(神)을 걸머 메고서 악마를 파는 데에 채 인식하지 못한 것이었”고, “국가관념을 배반하는 모든 개인주의적 향락 사상, 상하를 구별 못하는 공리적 평등 관념, 국민사상의 통일을 갈갈이 흩어놓아 저들류의 자유배급주의 속으로 후려 넣기에 여념이 없었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음으로, 작가는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라고 질문한다. “남 하는대로 국채도 사고 모든 연습에도 참가한다. 그러나 마음 한 구석엔 아직도 투철한 국민적 자각 그것이 아니라 그저 그때 그때를 모피해 나가려는 추수주의적이랄가 미영 독소(毒素)의 잔재는 남아있지 않은가.” 라고 의문을 드러내며, 또한 “어제까지도 서양이 아니면 죽을 줄 알든 자가 오늘은 테-블이 깨여지라고 황국시민으로서의 정열을 터트린다. 하기야 물론 이런 역사적 시기일수록 보다 더한 자각과 반성을 해야 할 일이지만 그것이 조금이라도 속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진실로 근신한 자기 반성에서가 아니라 경조부박한 일시 처신주의에서 오는 약바른 행동이라면 또 어느 기회에 어떤 음악에 도취해 버리지 않는다고 장담 못할, 극히 경계해야 할 자유주의적인 동요성이 아닐까.”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예들을 들기도 한다.

그리고 “이번엔 당신네와 당신네들 집안을 살펴보면 어떨까.”라고 하면서, 입으로는 영미를 배격하자고 하면서 속으로는 그들의 장점을 인정하려 하고, 박래품을 섬기고, 파머를 하고, 적성영화를 그리워하고, 사치스런 행동을 하는 등의 예를 들어 “이중에 한 가지라도 자기의 현실에 맞는 게 있다면 이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우리 국민을 씨도 손도 없이 해내고야 만다는 저 루-스벨트나 처-칠의 정글정글이도 무서운 적성 중독이 아직도 마음 한가운데로부터 완전히 청소되어 있지 않다는 유일한 증거일 것이다.”라고 끝맺고 있다. 말하자면 서구의 영미인의 문화에 중독된 마음이 완전히 청소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일상 치르는 시

힘에서처럼 적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것은 당시 국민총력운동 시기의 전시동원체제 속에서 국민의 정신 통일을 위해, 국민 생활 전반에 아직도 남아있는 영미인의 서구문화를 완전히 청산해야 한다는 내용을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약쟁이에 비유하여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일제 말기의 ‘국민총력운동’은 1938년 국민정신총동원 조선연맹에 의해 실시된 ‘국민정신총동원운동’을, 1940년 10월 국민총력조선연맹으로 전환시키면서 시작된 운동으로, ‘국체의 본의에 기초하여 내선일체의 실(實)을 거두며 각기 그 직역(職域)에서 멸사봉공의 정성을 받들어 협심육력(協心戮力)으로 국방국가체제의 완성, 동아신질서의 건설에 매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일제의 국민총력운동은 고도국방국가체제의 확립이라는 전쟁 수행을 위한 체제 확립에 조선 민중을 직접 참여시킬 것을 그 목표로 두고, 국민정신의 통일, 국민총훈련, 자급자족을 위한 최고도의 생산력 확충을 세 가지 요소로 들고 있다.²³⁾이 만화는 일반 대중에게 국민총력운동에서 추구하는 바의 ‘국민정신의 통일’ 즉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통일하는 것’²⁴⁾을 선전하고 강요하기 위한 것이다. “시험적발”이라는 이 글의 제목처럼, 영미인의 개인적이고 퇴폐적이고 자유주의적 서구문화에 동화되고 중독된 국민들을, 우리가 일상에서 치르는 시험에서처럼 나쁜 행위들을 적발하여 일제가 추구하는 집단주의, 전체주의로 나아가야 한다는 일제의 시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이다.²⁵⁾

『시험적발(試驗摘發)』은 영미인의 서구문화에 동화되고 중독된 국민들의 생각과 행동들을 일상의 시험에서처럼 적발하여, 총후 국민, 황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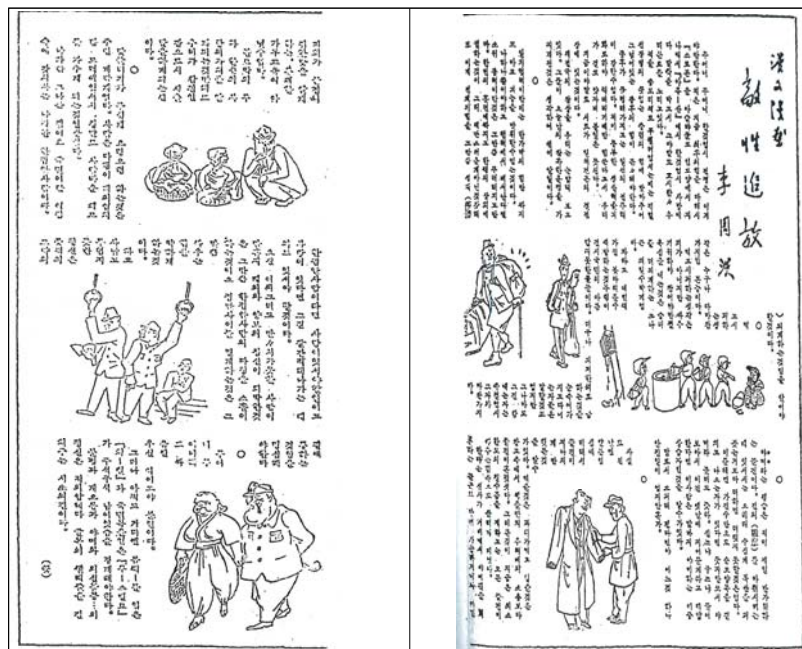
23)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 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77. 123-133쪽 참조.

24) 최유리, 위의 책, 123-133쪽 참조.

25) 일반적으로 친일문학의 성격을 규정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다. 첫째가 ‘프로문학에서 생산문학론으로’, 둘째가 ‘개인주의에서 집단주의로’, 셋째가 ‘서양 근대의 추수에서 동양의 자각’ 등이 그것이다. 김재용, 『협력과 저항』, 소명출판, 2004, 68-70쪽.

신민으로서 전시동원체제에 걸맞는 정신 상태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적성추방(敵性追放)』(1943.11.)은 여섯 컷의 만화와 만문이 두 쪽에 게재되어 있다.



만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만화는 여러 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이 앉아 놀고 있는 만화로, 만문의 내용처럼 충후의 국민 모두가 일치협력해야 함을 드러내는 만화이다. 둘째 만화는 짐이 없는 부부인듯한 남녀와, 짐을 가득 들고 등에까지 메고 지팡이를 든 한 남자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그 남자는 만문을 보면 아마도 충후 국민으로서 자신만 잘먹고 살려는 나쁜 사람이다. 셋째 만화는 경찰인듯한 사람이 야미(뒷거래)하는 사람을 검문하는 듯한 내용을 담고 있다. 넷째 만화는

좌판에서 어렵게 장사를 하며 살아가는 두 여인과 그 옆에 양복을 입고 있는 남자가 나오는데, 만문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그 남자는 야미를 하는 인물인 듯하다. 다섯째 만화는 전차인 듯한 공간에 한 사람이 앉아 있고 두 사람이 손잡이를 잡고 서 있다. 서 있는 사람 중 한 사람이 강아지를 안고 있다. 만문으로 미루어 짐작해보면 두 사람 사이에 다툼이 있는 듯하다. 그래서 같은 국민, 같은 집안 사람으로서 사랑과 예의가 있어야 함을 드러낸 만화로 보인다. 여섯째 만화는 몸빼를 입은 영국의 처칠과 국민복을 입은 미국의 루즈벨트가 걸어 다니는 모습을 담고 있다. 만문을 보면 겉으로는 총후의 복식인 몸빼와 국민복을 입었지만 속으로는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로 상징되는 영미의 서구문화라는 적성에 감염되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다음으로 만문을 옮기면 다음과 같다.

무어니 무어니 할 것 없이 전쟁은 이겨야만 한다. 적은 지금 최후의 힘을 다해서 「소로몬」을 아슬라 들고 인도양에서 지나에서 「아류—산」에서 할 것 없이 사방에다 말뚝을 박고서, 그야말로 호시탐탐 우리 본토를 노리고 있다.

적을 송도리채로 무찔러 업새는 데는 제일선 장병의 끝업는 충면의 힘에 발 맞추어 그 넘어 잇는 총후의 힘이 든든해야 한다.

총후가 물렁해 가지고는 일선의 전투력이 강할 수 없다. 적이 풍부한 생산력을 기화로 하여 떡 버티기에만 힘쓴다고서 우리가 결코 앓자버 볼 일은 못된다.

지금이야말로 서로가 일척건곤의 결전장에 잇는 것이다.

패전국의 참상을 우리는 눈앞에 보고 있다. 그들이 오늘날의 참혹한 운명을 가지게 된 것은 생각하여 쉬이 알 일이다.

0

일치협력이란 데는 한 가닥의 힘만 빠지도 아모 기능을 발휘할 수 업는 것이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협력에서 버서난다면 소위 총력이란 것은 그만큼 무력해지고 만다. 한번의 훈련에 빠지고 한때의 상회에 쫓히는 것이 그

리 태만스러운게 아닌 것 갓해도 이게 전체의 힘을 그만큼 정체(停滯)되게 하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0

먹고 시퍼하는 생각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 본능이다.

먹고 시퍼하는 생각은 죄가 아니지만 싸우기 위하여 참어야만 될 욕심을 내는 것은 승리를 더디게 하는 크나큰 죄일 수밖에 없다.

차 타고 내릴 때 가진 봇다리를 수색당하는 것부럼이 전시국민의 아픔답지 못한 꼴갑이다. 더구나 괴괴한 피로 금하는 것을 눈 속여 가지고 다니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나마도 그걸 탐내는 자는 속절없이 그자와 마찬가지다.

0

야미라는 행습은 적이 제일 반가워하는 물건이다. 전의(戰意)를 마취시키는데 잊어서는 오히려 수십 개 폭탄을 퍼붓는 거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할 것은 없다.

이렇게 가면 수단으로 순모 양복을 걸치고 나오는 자가 있다면 못지 안코서 야미라 불려도 쫓다. 신조냐 구조냐 물어 보아서 이젠 옛날에 지어둔 게라고 대답한다면 이 사람은 말까지 야미하는 이중 상습자인 것을 알 수가 있다.

말로써 모피해 된다면야 어느 것 하나 안될 일이 업지 안흔가.

0

사실로 전날엔 얄튼 인심에 비해서 물건이 지나치게 만헛든 것을 알 수가 있다. 먹을 것은 파리가 먹고 입을 것은 창고 속에서 썩을 만치 우리네의 소용보다 물건이 흔헛섯다. 그러튼 것이 지금은 최소한도의 필수품을 제하고는 모든 물건이 싸우는 힘 속으로 몰리게 되었다. 한다는 신사가 거리에서 야미?을 ??하는 ??도 ?? 가급?거니와 이런 기회가 물건의 귀한 맛을 알게 하는, 유쾌한 가두 교육이 아닐 수 없다. 한 토막의 무와 한 근의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되는 것만 해도 우리가 참된 인간으로서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것이다.

0

맛물리기가 무섭게 으렁으렁 하는 것은 주인 개박에 업다. 사람은 다행히 재미없지만 도덕에 있어서 정말로 사람다운 체모(?)를 가추게 되는 것이다.

나라가 크나큰 집이오, 국민이란 이 집 속에 갓치 사는 나직한 한 집

안사람이다.

한 집안 사람이라면 사랑이 잊서야 할 일이고 사랑이 있다면 그걸 잘 간직해 나가는 예의도 잊서야 할 것이다.

요샌 어찌 그리도 만만치가 못한 사람이 만흔지 예의와 양보의 정신이 희박한 것은 그만큼 한 집안 사람의 다정을 소홀이 하는 것이요, 집안 사이를 밋게 하는 것은 그만큼 싸우는 힘을 약하게 하는 것이다.

차고 사납고 두텁지 못한 정신은 곳 적의 모략의 꾀에 중하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0

무어니 무어니 해도 싸움엔 우선 익이고야 볼 일이다. 그러나 아직도 거리엔 몸빼-를 입은 「처-칠」과 국민복을 입은 「루-스벨트」가 구석구석 남아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불평과 게으름과 야미와 의심 등등의 정신은 적의 압해다 굴복의 빨래줄을 걸쳐주는 시초의 길이다.

이 만문은 7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다. 첫 단락에서 작가는 전쟁에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현재 전장에서 적들이 최후의 힘을 다해 우리 본토까지 노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무찌르기 위해서는 일선장병들 뿐만 아니라 총후의 힘이 든든해야 한다는 말로 만문을 시작하고 있다. 2단락에서는 전장과 총후가 일치협력하여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전시국민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지적한다. 만화의 제목처럼 ‘적성(敵性)’에 해당되는 것들을 추방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 내용은 2단락에서 6단락까지 계속된다. 나 하나쯤이야 하고 공동으로 협력해야 하는 일에서 빠지는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먹고 싶은 것도 참는 것, 특히 총후에서 가장 나쁜 야미(뒷거래)라는 행습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리고 일상에서 국민과 집안을 지키기 위한 예의와 양보의 정신(도덕심)을 지녀야 한다는 것 등이다. 그리고 끝부분에서 다시 한번 첫 단락에서와 같이 전쟁에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그러나 아직도 거리엔 몸빼를 입은 「처-칠」과 국민복을 입은 「루-스벨트」가 구석구석 남아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불평과 게으름과 야

미와 의심 등등의 정신은 적의 앞에다 굴복의 빨래줄을 걸쳐주는 시초의 길이다.”라고, 겉으로는 충후의 복식인 몸빼와 국민복을 입었지만 속으로는 영국의 처칠과 미국의 루즈벨트로 상징되는 영미의 서구문화라는 적성에 감염되어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하면 태평양전쟁의 승리를 위해 전장과 충후가 일치협력 해야 하고, 일상 속에서 영미인의 서구문화에 중독된 조선인들의 적성을 추방해야 한다는 점을 웅변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적인 내용은 앞의 『시험적발(試驗摘發)』과 연결되어 있는 만화이다.

그런데 이 만문의 첫 부분에서 제시한 전쟁 상황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만문에서는 “적은 지금 최후의 힘을 다해서 『소로몬』을 아슬라 들고 인도양에서 지나에서 『아류—산』에서 할 것 없이 사방에다 말뚝을 박고서, 그야말로 호시탐탐 우리 본토를 노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이 전쟁에서 이기고 있지만 적들이 ‘최후의 힘’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전장과 충후가 일치협력 해야 하고, 일상 속에서 영미인의 서구문화에 중독된 조선인들의 적성을 추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쟁의 실상은 이와는 다르다. 당시의 전쟁 상황을 살펴 보자.

주지하다시피 1941년 12월 진주만을 기습 공격하여 태평양 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한동안 승전을 거듭하였다. 홍콩, 보르네오(Borneo), 마닐라(Manila), 싱가포르, 바타비아(Batavia), 랭군을 비롯한 동남아시아는 물론 남태평양의 뉴기니아 일대, 북태평양의 알류산 열도의 요충지도 점령하여 제해, 제공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1942년 6월 미드웨이(Midway) 해전에서 대패한 일본군은 태평양 지역에서 제해, 제공권을 상실하고 패색이 짙어갔다. 이즈음 유럽의 전세도 독일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1943년에 들어서면서 일본군의 패전은 거의 확실하게 되었다. 2월에는 가달카날(Guadalcanal)로부터 후퇴하였고, 5월에는 아투(Attu) 섬의 일본군이 전멸당했다. 이런 상황에서 11월에는 카이로 회담이 개최되어

카이로 선언이 발표되었고, 테헤란 회담에서는 소련의 대 일전 참전이 결정되었다. 1944년에 접어들면서 일본군은 패전을 계속하였고 도조 내각은 결국 물러나고 7월에 고이소 구니아키 내각이 성립되었다. 고이소 내각의 임무는 일대 반격을 도모하여 이를 계기로 연합군과 빨리 전쟁을 종결짓는다는 것이었다.²⁶⁾

이를 통해 볼 때, 이 만문만화는 당시의 태평양 전쟁의 전황을 왜곡하여 전하고 있다. 이 만문만화가 발표된 1943년 7월의 전황은, 위의 내용에 의하면 일본군의 패전은 거의 확실한 것이었다. 작가는 이러한 전쟁 상황을 은폐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으로, 태평양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총후의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영미인의 적성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적성추방(敵性追放)』은 전쟁에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전장과 총후가 일치협력하여 총력전을 펼쳐야 하고, 이를 위해 영미인들의 서구문화에 물들어 있는 조선인들의 적성(敵性)을 추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즉 전쟁 상황을 은폐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으로, 태평양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총후의 국민들이 영미인의 적성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만화이다. 『시험적발(試驗摘發)』과 마찬가지로 국민총력운동에서 주창하는 전시동원체제에 걸맞는 ‘국민정신의 통일’ 즉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통일하는 것’을 또 한번 선전하고 강요하는 것이다.

『적성추방(敵性追放)』과 『시험적발(試驗摘發)』은 국민총력운동에서 주창하는 총후 국민, 황국신민으로서 지켜야 할 자세, 즉 전시동원체제에 걸맞는 통일된 정신 자세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내용으로,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을 견지하면서 대일협력적인 내용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작품이다.

26)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780쪽.

4. 결론

향파 이주홍은 1940년 2월 『家庭の友』에 만문만화 「대지(大地)의 아들」을 시작으로, 1944년 1월 『半島の光』에 만문만화 「적(敵)의 흑심(黑心) 폭로전(暴露展)」을 발표하기까지, 40여회에 걸쳐 많은 작품을 발표하였지만 대부분이 만화 작품이다. 이 글은 향파 이주홍이 일제 말기 『家庭の友』와 『半島の光』 두 잡지에 발표한 만문 만화 작품 중에서 「이설 춘향전(異說 春香傳)」(1940.5.)과 「시험적발(試驗摘發)」(1943.7.), 「적성추방(敵性追放)」(1943.11.) 등 3편을 최초로 소개하고, 이들 만문만화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만문만화들은 일제 말기 이주홍의 현실인식과 그가 어떻게 대일협력의 길로 나아갔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기에 이주홍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작품들이다. 이를 요약하여 결론으로 삼는다.

첫째, 「이설 춘향전(異說 春香傳)」(1940.5.)은 「춘향전」의 복잡하고 긴 플롯을 한 편의 만문만화로 개작한 작품으로, 농촌을 배경으로, 이충각이 춘희에게 반하여 서로 사랑하게 되고, 이충각이 돈을 벌려고 만주로 떠났을 때 변주사가 춘희를 유혹하였으나 그녀는 정조를 지켰으며, 만주에서 돈을 벌고 돌아온 이충각이 변주사를 쫓아내고 둘이서 행복하게 산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볼 때 변주사는 농촌의 지주나 마름에 해당되는 듯하고, 돈을 벌려고 만주로 가야 하는 이충각에게서는 당시 가난으로 고향을 떠나는 유이민자의 모습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이충각이 만주로 떠났을 때 변주사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춘희를 바라보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울고만 있는 춘희의 부모 모습이 그림에서 나타나는 데, 이는 마름이나 지주의 횡포에 항거하지 못하고 보고만 있어야 하는 그 시절의 일반 농민들의 모습이 묘사된 것 같다. 그리고 이충각이 돌아와 변주사를 몽둥이질하는 모습은 역전된 상황을 과장하여 우스꽝스럽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이 작품은 「춘향전」의 내용을 만문만화 한 편에 요약하여 개작하였기 때문에, 당대의 농촌 상황과 이 작품이

드러내고자하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다. 일반적인 의미에서 이충각과 춘희라는 농촌 청년 남녀의 로맨스에 지나지 않는다. 즉, 개작 텍스트의 이데올로기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없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상을 통해 볼 때, 『이설 춘향전』은 당시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었던 『춘향전』을 대중매체인 만문만화로 개작하여 대중의 독서 취향에 편승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여겨진다.

둘째, 『시험적발(試驗摘發)』(1943.7.), 『적성추방(敵性追放)』(1943.11.)은 작가의 대일협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시험적발(試驗摘發)』은 서구문화의 상징인 바이올린을 예를 들어, 영미인의 개인적이고 퇴폐적이고 자유주의적 서구문화에 동화되고 중독된 국민들을, 시험에서처럼 적발하여, 충후 국민, 황국신민으로서의 정신 자세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으로 강조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일제의 국민총력운동에서 추구하는 바의 ‘국민정신의 통일’ 즉 ‘충량한 황국신민으로 통일하는 것’을 조선인들에게 선전하고 강요하는 만화이다. 『적성추방(敵性追放)』은 전쟁에는 무조건 이겨야 한다고 하면서, 전장과 충후가 일치협력하여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영미인들의 서구문화에 물들어 있는 조선인들의 적성(敵性)을 추방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즉 당시의 전쟁 상황을 은폐하면서 일본 제국주의의 시선으로, 태평양전쟁의 승리를 위하여 충후의 국민들이 영미인의 서구문화라는 적성의 중독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만화이다. 『시험적발(試驗摘發)』과 마찬가지로 국민총력운동에서 주창하는 충후 국민, 황국신민에 걸맞는 통일된 정신 자세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또 한번 강조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설 춘향전』(1940.5.)은 당시 가장 많이 팔리고 인기가 있었던 『춘향전』을 만문만화로 개작하여 대중의 독서 취향에 편승하려는 의도에서 창작된 것으로 여겨진다. 그리고 『시험적발(試驗摘發)』(1943.7.)과 『적성추방(敵性追放)』(1943.11.)은 일제가 국민총

력운동에서 주창하는 총후 국민, 황국 신민에 걸맞는 ‘국민정신의 통일’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점을 선전하고 강조한 것으로, 작가의 대일협력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주홍의 대일협력의 과정이나 양상에 대해서는, 서론에서 언급한 필자의 논문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1)』(『한국문학논총』 제74집, 한국문학회, 2016.)의 내용과 그리고 이 두 잡지에 실려 있는 연재만화인 『즐거운 박(朴)침지』와 『명랑(明朗)한 김산일가(金山一家)』를 연구한 후에 전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참고문헌

- 고은지, 『1930년대 대중문화 속의 ‘춘향전’의 모던화 양상과 그 의미-『만화 모던 춘향전』을 중심으로』, 『민족문학사연구』 30호, 2007, 272-303쪽.
- 국립현대미술관 기획 / 김윤수 외 57인 지음, 『한국미술 100년 ①』, 한길사, 2006.
- 김승태, 『중일전쟁 이후 전시체제와 수탈』, 2009.
- 김용구, 『세계외교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8.
- 김인환 · 정호웅 외, 『주변에서 글쓰기, 상처와 선택』, 민음사, 2006.
- 김재석, 『이주홍의 『탈선춘향전』과 『춘향전』연구』, 진창영 외, 『한국문학 속의 합천과 이주홍』, 국학자료원, 2012, 289-316쪽.
- 노지성, 『‘춘향전’ 패러디 소설과 1955년 영화 <춘향전>』, 『한민족어문학』 55집, 2009, 53-87쪽.
- 류종렬, 『가작사 연대기 소설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류종렬 엮음, 『이주홍 소설 전집』 제 1 권, 세종출판사, 2006.
- 류종렬 편저, 『이주홍의 일제 강점기 문학 연구』, 국학자료원, 2004.
- 류종렬, 『이주홍과 근대문학』,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4.
- 류종렬, 『이주홍의 일제 말기 일문 만화 연구』, 『한중인문학연구』 제48집, 한중인문학회, 2015, 127-151쪽.
- 류종렬, 『이주홍 작품의 화전민과 메아리 모티프의 변모 양상』, 『한국문학논총』 제69집, 한국문학회, 2016. 229-259쪽.
- 류종렬, 『일제 말기 이주홍의 만문만화 연구(1)』, 『한국문학논총』 제74집, 한국문학회, 2016. 393-428쪽..
- 류종렬, 『이주홍과 동양지광』, 세종출판사, 2017.
- 박경식,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지배』, 청아출판사, 1986.
-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시공사, 1999.

- 시미즈이사오 편, 『풍자만화로 보는 근대일본』, 소명출판, 2011.
- 신명직, 『김규택의 만문만화와 ‘웃음’』, 사에구사 도시키쓰 외, 『한국근대 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485-522쪽.
- 윤대석, 『식민지 문학을 읽다』, 소명출판, 2012.
- 이미원, 『현대극의 <춘향전> 수용』, 『고전희곡 연구』, 제6집, 2003, 251-272쪽.
- 정봉석, 『이주홍의 춘향 제재 변용 희곡 연구』, 『동남어문논집』, 제20집, 동남어문학회, 2005, 219-239쪽.
- 조남현, 『한국 현대 소설사』 2, 문학과 지성사, 2012.
-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4.
- 최열, 『한국만화의 역사』, 열화당, 1995.
- 최유리,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 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1977.
- 한채화, 『개화기 이후의 『춘향전』 연구』, 푸른사상사, 2002.
- 황혜진, 『춘향전의 수용문화』, 월인, 2007.

<Abstract>

A Study on Lee, chowhong's Manmun
Manhwa in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Period(2)

- Focused on 『The Friend of the Home(家庭の友)』 and
『The Light of the Peninsular(半島の光)』 -

Rhyu, Chong-Ryeol*

Hyangpa, Lee, chowhong began his career with a cartoon of 『The Son of the Earth(대지(大地)의 아들)』, 『The Friend of the Home(家庭の友)』 in February, 1940, and wrote over 40 works till 『Revealing Enemy's Evil Thoughts(적(敵)의 흑심(黑心) 폭로전(暴露展))』, 『The Light of the Peninsular(半島の光)』 in January, 1944. However, most of his works are cartoon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what Manmun Manhwa 『Another Chunhyangjeon(이설 춘향전)』 (1940.5.), 『Test Detection(시험적발(試験摘發))』 (1943.7.) and 『Enemy Deportation(적성추방(敵性追放))』 (1943.11.) is among the cartoons in the two magazines of 『The Friend of the Home(家庭の友)』 and 『The Light of the Peninsular(半島の光)』 and review its meaning. Also, this study reviewed the matter of Lee, chowhong's historical awareness that he cooperated with Japa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First, 『Another Chunhyangjeon(이설 춘향전)』 (1940.5.) is a revised cartoon of 『the Chunhyangjeon(춘향전)』 which has a complicate and long plots. However, it is too short to figure out the meaning of the

* Pusan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

day and the ideology of the revised text. In other words, it seems that 'Another Chunhyangjeon(이설 춘향전)' was written in the purpose to get the popularity of the public making use of the most popular 'the Chunhyangjeon(춘향전)'.

Second, 'Test Detection(시험적발(試驗摘發))'(1943.7.) and 'Enemy Deportation(적성추방(敵性追放))'(1943.11.) explicitly reveal the writer's cooperation with Japan. The two cartoons emphasize the general public should have the spirit as the people of the Japanese Empire.

Key Words : 『The Friend of the Home(家庭の友)』, 『The Light of the Peninsular(半島の光)』, Lee, chowhong's Manmun Manhwa in the end of Japanese Colonial Period, 'Another Chunhyangjeon(이설 춘향전)', 'Test Detection(시험적발(試驗摘發))', 'Enemy Deportation(적성추방(敵性追放))', Cooperation with Japan

■ 논문접수 : 2017년 7월 20일

■ 심사완료 : 2017년 8월 19일

■ 게재확정 : 2017년 8월 21일

